

창작국악단 도드리·전통문화연구회 얼쑤·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광주시립창극단 공연

국악과 미디어 파사드의 이색 만남!

광주 국악 상설공연, 11월 셋째주 국악한마당

19~23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서 화려한 공연
창극·국악관현악·타악퍼포먼스·국악가요 등 다채

를 가미해 재창작한 '장구 바이어스', '성 주풀이,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을 한데 엮은 남도민요 연곡, 운우풍뢰의 소리를 상징하는 사물악기와 땅의 울음을 상징하는 모듬북이 어우러져 자연의 변화 무쌍함을 표현한 '모듬북과 사물놀이'를 공연한다.
21일(목)은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공연한다.
김광복 명인의 피리독주 '팔도민요연곡'으로 흥겹게 시작한다.
아쟁과 병창의 만남 '육자배기', 한국 무용 '풍류남아', 김은석 명창의 소리로 판소리 적벽가 중 '자룡 활 쓰는 대목'을 공연한다.
이어서 전통국악양상을 뽐내며 신명

나는 무대를 마련한다.

춘향가 중 '적성가', 팔도 아리랑을 편곡한 '아리랑', 춘향가 중 '어사출두', 흥보가 중 '박타령', 경기민요 뱃노래를 락버전으로 편곡한 '뱃노래' 등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갖는다.

22일(금)~23일(토)은광주시립창극단이 이틀간 공연한다.

22일은 인간 내면의 고뇌와 변민을 춤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화현과 바라', 민요 '신 뱃노래', 거문고와 해금의 이중주 '거문고 해금 병주', 어사출두 전 옥중 춘향을 만나기 전 이몽룡의 이야기를 담은 단막창극 '어사상봉', 팽과리, 장구, 북, 징의 신명나는 어울림 '얇은반사물놀이'를 공연한다.

23일은 왕과 왕비의 아름다움과 기쁨

을 느낄 수 있는 창작무 '태평성대', 부자가 된 흥부를 찾아가 화초장을 얻어오는 놀부의 이야기를 담은 익살스러운 단막창극 '화초장', 금강산 절경을 담은 민요 '금강산', 신민요 '메아리타령', 쇠, 북, 징이 어우러져 연주를 펼치는 '판굿'과 '버꾸놀이', '진도북춤'으로 흥겨운 시간을 마련한다.

매일 오후 5시(일, 월 휴관), 치평동광주공연마루에서 흥겨운 우리 소리를 만날 수 있다.

관람은 전석 무료이고, 지정좌석제로 운영한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 또는 전화(062-613-8379)를 통해 좌석을 예약하면 된다. /오복기자 boh@



광주국악상설공연 11월 셋째 주 공연이 19~23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정통 판소리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에서부터 흥겨운 창극, 국악관현악, 타악퍼포먼스, 국악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 지난달 도드리 공연모습.
↓ 지난달 29일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 공연을 펼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